

“선·후배 똘똘 뭉쳐 스플릿 결정 전 10승 하겠다”



광주 생활 3년 만에 최고참이 된 광주FC 주장 이종민은 공·수에서 베테랑의 힘을 보며 광주의 한계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FC
태국 캠프를 가다**

**해피엔딩 꿈꾸는 주장 이종민
배고픈 후배들과 같이 성장
성취감·쾌감 배가 되는 듯
옛 동료 정조국과 호흡 기대**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이 짙은 ‘광주는 내 운명’. 해피엔딩을 꿈꾸는 주장 이종민이다.

주장 앞에 최고참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다. 1983년생 이종민은 광주 생활 3년 만에 최고참이 됐다. 팀의 허리였던 이들이 군입대와 이적으로 떠나면서 팀은 한층 어려졌다. 그만큼 최고참 이종민의 어깨는 무겁다.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종민의 고된이고 태국 캠프의 목표다. 이종민은 “기존 선수들이 나가서 여색

한 부분이 있는데 분위기를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힘든 훈련을 하면 전해지는 게 있다. 광양에서 억지로 힘든 훈련을 하기도 하고 태국 오기 전까지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다”며 “팀이 똘치는 게 중요하다. 감독님께서도 선수들 특장 파악해서 똘치라고 주문하신다”고 언급했다.

팀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하는 주장. 그는 어떤 주장일까? 토끼 같으면서도 여우 같고, 여우 같으면서도 호랑이 같은 주장이다.

이종민은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다.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더 무서워하는 거니까 장난을 치다가도 한 번씩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한다”며 웃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이종민은 광주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다. 반대로 이종민에게도 광주는 운명 같은 팀이다. 어렵게 선택한 광주는 이종민에게 축구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이종민은 “수원, 서울, 울산 등 빅클럽에서 뛰었다. 광주보다 운동 환경이나 여건, 연봉 등 대우가 좋다. 배고프지 않은

축구를 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하나 이루는 성취감이나 쾌감이 배가 되는 것 같다. 우승도 해봤는데 승격했을 때 더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배고픈 후배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베테랑. 그라운드에 대한 마음은 더 각별해졌다.

이종민은 “사람들은 우리 팀이 강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클래식 경기를 뒀던 선수가 거의 없어서 기가 죽을까봐 걱정도 있었다. 여름이겨 성남과의 경기를 앞두고 (김)두현이 형과 경기를 하게 됐다”고 장을 하더라(웃음). 같은 프로선수다, 클래식 무대도 부딪혀 보면 클래식도 별 것 아니라고 해줬었다. 광주가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도 보여줬다. 후배들이 부담도 느낄 것인데 자신감도 얻었을 것이다”며 “경기장 나가는 게 좋아서,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광주를 택했는데 많은 것을 얻었다. 어린 후배들이 많아서 아프지 않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아프지 않고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종

민. 그런데 그는 지난 24일 연습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예전에 큰 부상을 입었던 부위라서 조만간 귀국해 정밀 검진을 받은 뒤 시즌에 맞춰 천천히 또 완벽하게 몸을 만들 예정이다. 긴 호흡으로 시즌을 보고 있는 이종민은 옛 동료 정조국의 합류가 반갑다. 공·수에서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면서 광주의 한계에 도전할 생각이다.

“정조국이 왔는데 좋은 기억이 많다. 청소년 대표에서도 골을 합작하기도 했었다”고 회상한 이종민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억지로 전화를 안했다. 처음엔 되게 어색하다고 하더라(웃음). 올해도 우리 팀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어려서 문전 앞에서 당황한 적도 많고 득점이 나오지 않아서 어렵게 풀려간 경기도 많았다. 베테랑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수에서 둘이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해 최종전에서 10승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스플릿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10승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방북=클 사진 김여울기자 wool@

기록적인 한파가 다녀간 한반도. 광주 FC의 캠프가 꾸려진 태국 방콕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연일 30도 넘게 치솟던 기온이 며칠 전 비가 한차례 지나간 뒤 25도 안팎으로 내려갔다. 무엇보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푹 떨어졌다.

지켜보는 이들의 옷깃을 세우게 하는 뜻밖의 추위(?)지만 선수들은 “운동하기에 좋다”며 함박웃음을 띠었다.

광주 FC에게 태국 방콕 캠프는 처음이다. 중국 상하이에 이어 지난 2년간은 일본 시즈오카를 새로운 시즌을 위한 워밍업 무대로 삼았었다. 후지산이 내려다보는 시즈오카 캠프는 운동장과 숙소와 함께 갖춰져 있어서 집중해서 훈련을 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날씨

방콕에 찾아온 ‘겨울’...운동하긴 딱 좋네

가 북방이었다. 도쿄와 인접한 시즈오카는 겨울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됐었다. 2014년 캠프 때는 4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찾아오면서 남기일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직접 삼을 들고 제설 작업을 벌이는 등 ‘눈발 캠프’를 치르기도 했다. 기온이 쓸쩍 내려가면서 방콕은 최상의 캠프지가 됐다. 한낱 더위에 진땀을 흘렸던 선수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손발을 맞추고 있다.

여름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더워서 오히려 훈련이 힘들었는데 비가 지나고 나서 운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됐다. 따뜻한 곳에서 운동을 하니까 몸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겨울이 왔는데 좋은 기억이 많다

정조국이 왔는데 좋은 기억이 많다. 청소년 대표에서도 골을 합작하기도 했었다”고 회상한 이종민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억지로 전화를 안했다. 처음엔 되게 어색하다고 하더라(웃음). 올해도 우리 팀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어려서 문전 앞에서 당황한 적도 많고 득점이 나오지 않아서 어렵게 풀려간 경기도 많았다. 베테랑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수에서 둘이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해 최종전에서 10승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스플릿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10승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날씨의 도움을 받은 광주 선수단은 26일에는 빠르게 전개되던 훈련 템포를 한 박자 늦추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는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6시 인기가와 실력을 갖춘 무양통 유니타이트와의 연습 경기를 치렀다. 중요한 연습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은 특별한 훈련 일정 없이 오전·오후 시간을 보냈다. 모처럼의 여유 시간이 주어졌지만 선수들의 훈련 열기는 뜨거웠다. 숙소 한 쪽에 마련된 웨이트장이 분주하게 돌아갔다. 따로 명단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지만 주장 이종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부지런히 웨이트장에 발길을 하면서 뜨거운 훈련 열기를 보여줬다. ‘광주의 신입생’ 정조국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 24일 타이포트 FC와의 연습 경기에서 타박상을 입었던 정조국은 “무양통과의 경기에 나가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남기일 감독의 만류로 이날 경기로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훈련은 빠질 수 없었다.

“지금은 최상의 몸을 만들고, 좋았을 때의 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정조국은 열심히 팔을 휘둘 뒤에야 속으로 돌아갔다.

태국에 몰아닥친 매서운 바람, 그 바람 속에서 광주가 클래식 리그의 돌풍을 꿈꾸고 있다.

“이대호, 늦게라도 돌아와”

소프트뱅크 회장 “캠프 합류 유예기간 줘야”

이대호(34)를 향한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구애가 계속되고 있다.

오사다하루(76) 소프트뱅크 회장은 “2년 동안 소프트뱅크에서 뛰던 이대호라면 스프링캠프 합류가 조금 늦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단이 ‘1월 30일까지 재계약 의사 통보’를 강조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한 자세다. 일본 스포츠닛폰은 26일 “오사다하루 회장이 이대호에게 유예기간을 줄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오 회장은 “스프링캠프 합류일을 정하는 건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이라면서도 “이대호는 2년 동안 소프트뱅크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

팀을 위해서는 이대호의 잔류가 최선이고, 캠프 합류일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2월 1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애초 소프트뱅크는 “이대호가 소프트뱅크에서 뛰려면 캠프 시작 전에 계약을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 회장의 제안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이대호와 협상할 여지가 생겼다. 스포츠닛폰은 “국내 선수라면 캠프 시



작일에 함께 훈련에 돌입해야 하지만 외국인 선수는 추후에 합류하기도 한다.

메이저리그에서 일본으로 복귀한 구로다 히로키도 지난해 다소 늦게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대호는 현재 무적 신분이다.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로 들어가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과 함께 훈련하는 이대호는 29일 귀국할 계획이다. 그전에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마치는 게 이대호가 원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소프트뱅크는 이대호의 잔류를 원한다. 스포츠닛폰은 “오 회장은 미국 진출을 고민하던 마쓰다 노부히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잔류를 이끌어냈다”며 “이대호에게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며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삼성 최형우 7억원 계약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최형우(33)가 7억원에 2016년 연봉 계약을 했다. 삼성은 26일 “최형우와 지난해 연봉 6억원에서 1억원(16.7%) 오른 7억원에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1억원은 차우찬(3억원→4억원)과 함께 올해 팀 내 최고 인상액이다. 삼성은 “최형우는 지난해 전 경기에 4번타자로 출전해 타율 0.318, 33홈런, 123타점을 기록했다”

며 연봉 상승 요인을 설명했다.

하지만 최형우는 올해 양현종(KIA 타이거즈), 지난해 김현수(롯데)에 오를 수·당시 두산 베어스가 받은 비(非)자유계약선수(FA) 연봉 최고액인 7억 5천만원에는 이르지 못했다.

SK 와이번스 김광현이 새로운 비 FA 연봉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삼성은 최형우와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2016년 계약 대상 56명과 연봉 협상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8강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와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의 경기에서 윌리엄스가 강력한 리턴샷을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년간 한번도 안 졌다

세리나, 샤라포바에 18연승...호주오픈 4강 진출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가 마리아 샤라포바(5위·러시아)와 대결에서만 18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천400만 호주달러) 4강에 진출했다.

윌리엄스는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9일째 여자단식 준준결승에서 샤라포바를 2-0(6-4 6-1)으로 물리쳤다.

2004년 11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챔피언십 패배 이후 11년이 넘도록 샤라포바에게 한번도 패하지 않은 윌리엄스는 상대 전적 19승2패, 최근 맞대결 18연승의 절대 강세를 이어갔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내줘 1세트 초반 0-2까지 끌려갔으나 이내 두 게임 연달아 때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5-4로 앞선 상황에서 샤라포바의 서브 게임을 약 10분간 듀스를 주고받는 접전 끝에 브레이크하며 기선을 잡았다.

기세가 오른 윌리엄스는 2세트에서는 반대로 샤라포바의 첫 서브 게임을 가져오며 게임스코어 3-0으로 달아났다.

궁지에 몰린 샤라포바는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도 더블볼트를 한 차례 기록하는 등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끝에 0-4까지 밀렸고, 윌리엄스는 다음번 서브 게임을 지키면서 5-0을 만들었다.

윌리엄스는 서브 에이스 13개를 기록해 3개에 그친 샤라포바를 압도했고 공격 성공 횟수 역시 31-11을 기록하며 1시간31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윌리엄스는 4강에서 아그니에슈카 라드반스카(4위·폴란드)와 맞붙는다.

라드반스카는 앞서 열린 8강전에서 카를라 수아레스 나바로(11위·스페인)를 2-0(6-1 6-3)으로 꺾고 4강에 선착했다.

윌리엄스는 라드반스카를 상대로도 8전 전승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8



샤라포바

승 가운데 7승이 2-0 승리일 정도로 라드반스카를 압도했다.

남자단식에서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가장 먼저 4강에 진출했다.

페더러는 토마시 베르디흐(6위·체코)를 상대로 3-0(7-6(4) 6-2 6-4)으로 완승, 2014년 이후 2년 만에 호주오픈 4강 무대에 복귀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연속 호주오픈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냈던 페더러는 지난해 3회전에서 탈락했다.

페더러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니시코리 게이(7위·일본) 경기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주니어 남자단식에 출전한 정윤성(주니어 세계 랭킹 9위·양명)은 2회전에서 페트릭 리블(주니어 31위·체코)에게 2-1(5-7 6-4 9-7) 역전승을 거뒀다.

정윤성은 우동민(주니어 30위·대만)과 8강 진출을 다툰다. 이번 대회 주니어 남자단식 16강에는 정윤성과 오현영(주니어 34위·동대) 등 한국 선수 2명이 진출했다.

연합뉴스